

# 갑진년(甲辰年) 신년사

“홍천이 가일층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천실버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수 신영재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갑’은 푸른색을 그리고 ‘진’은 용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는 ‘푸른 희망을 품고 비상하는 홍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군민 한분 한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바라는 꿈과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홍천군에서는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보호자의 다른 지역 거주 등으로 홀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올해에도 다양하게 요구되는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이 가일층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모든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홍천군 공직자들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홍천실버뉴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홍천군수 신영재 올림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홍천실버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의회 의장 박영록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강한 생명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청룡과 같이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홍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실버신문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9대 홍천군의회는 개원 1년을 지나며,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이룬 해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여 민생과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산림자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회의 인터넷 생중계를 본회의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의회는 “주민을 생각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이라는 의정구호 아래 변함없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행복한 홍천을 만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 장간 10주년을 맞는 홍천실버신문은 우리 홍천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에 풍요와 활기를 드리는 소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홍천실버신문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약 30퍼센트인 우리 군에서 실버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관계자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나눔을 담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로써 지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르신들과 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천군의회 의장 박영록 올림

# 갑진년(甲辰年) 신년사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은 홍천군의 성공적인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홍천실버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은 우리 문화에서 지혜와 힘,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청룡(靑龍)은 많은 사람에게 운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존재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청룡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언제나처럼 다사다난했습니다. 3년 4개월여 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의 자유를 회복한 기쁨도 잠시, 신림역·분당역 ‘묻지마 흉악범죄’로 모든 국민이 두려움과 슬픔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발휘된 우리 민족의 저력은 2024년 다시 한번 발휘되어 올 한 해를 역전의 드라마로 장식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628년 만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속도감 있게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하며, 우리 도의 장구한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청사진도 그려야 합니다.

지혜는 주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은 강원 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의 성공적인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역과 나라,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조언 건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홍천실버신문이 어르신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천실버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홍천군민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거듭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올 한해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가로 발전하기 희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나라가 더 평안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원 홍천군 국회의원 유상범 올림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대한민국 행복지수의 척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중동의 잦은 전쟁으로 국내·외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악화로 예산 편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와 비교해 대부분 예산이 줄어들었으나 어르신들의 복지 예산 편성은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예산은 되지 못하겠지만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서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장차 더 많은 복지 정책과 예산지원으로 어르신들 노후의 삶이 따뜻해지고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대한민국 행복지수의 척도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조건 중 으뜸은 건강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의 소중함은 더욱 특별해집니다. 건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알맞은 적당한 운동이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으로 구분됩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운동을 통해서 유지 증진되지만, 정신건강은 마음을 비우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며 대화를 많이 나누실 때 유지됩니다.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시느라 질곡의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 모두 건강관리 잘하셔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뻗어가는 조국의 모습을 만끽하시며 행복 가득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장 홍천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래서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맘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분명 더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영욱 올림

# 갑진년(甲辰年) 신년사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홍천실버신문 애독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입니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  
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홍천실버신문 신년호 발행에 맞춰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홍천실버신문의 활약상은 참으로 눈부십니다. 지역 60세 이상의 총 10분의 기자분들이 발로 뛰고 취재하여 전하는 지역의 생생한 소식과 알찬 정보 제공 등 그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은 물론 올바른 언론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정론(正論)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경제 한파가 몰아쳐 민생경제가 얼어붙었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11일 우리 강원은 조선시대인 1395년 정해진 행정 명칭이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힘차게 열어젖혔습니다.

나아가, 산림을 주제로 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는 14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흥행에 성공하며 산림수도 강원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 줬습니다.

우리 강원은 특별자치도 2년 차인 갑진년 올 한해, 제2의 웅비(雄飛)의 시대를 열 것이고, 그 중심지야말로 ‘경제으뜸도시’ 홍천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홍천의 공복인 저는 더욱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지난해 2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천의 숙원이자 염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홍천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선봉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특히, 홍천의 오늘이 있기까지 초석을 놓으신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일이라면 저의 모든 열정을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홍성기 올림

“긍정적인 에너지로 더욱 새롭고 풍요롭고 기쁨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장 이형주입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15% 선을 넘게 되고, 2025년도는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홍천군의 노인 인구는 2023년 11월 말 기준 21,200명으로 홍천군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 7개 면은 40% 이상으로 10명 중 4명이 65세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노년 세대가 더 이상 복지 수혜의 대상이거나 세대 간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살려 후배 세대에게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넘겨주기 위해 굳건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어르신 체육행사 개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가온 2024년에도 더욱 발전된 대한노인회가 될 수 있도록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천군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실천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과 노인복지관 임직원분들, 사회단체 관계자분들,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 사무장, 회원분들,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비로운 청룡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풍요로운 행운을 약속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청룡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더욱 새롭고 풍요롭고 기쁨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장 이형주 올림

# 갑진년(甲辰年) 신년사

“홍천군 복지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실버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장 권영택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처럼 빛나는 새해 맞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도약의 시기였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소외된 약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홍천군노인복지관을 비롯한 홍천시니어클럽을 수탁 운영하게 됨으로써 홍천군 어르신분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홍천군 복지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홍천군에도 더욱 풍성한 성취와 발전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권영택 올림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시고 성공을  
거두실 수 있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길”



홍천군민 그리고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신동천입니다.

푸른 용의 해, 2024년 갑진(甲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처럼 높이 솟아올라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시고 성공을 거두실 수 있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이후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지역자원 및 조직화 서비스, 노년사회화 교육 지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그리고 전시회 및 발표회, 김장 행사 등 각종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보내주신 지지의 손길 덕분에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이에 보답하여 홍천군노인복지관도 항상 여러분 곁에 머물러서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천군노인복지관은 『행복한 어르신, 가고 싶은 복지관, 함께하는 지역복지』라는 비전으로 어르신들의 신체·정서·경제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이며 지역 내 어르신들 모두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홍천군노인복지관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홍천군민 그리고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신동천 올림

